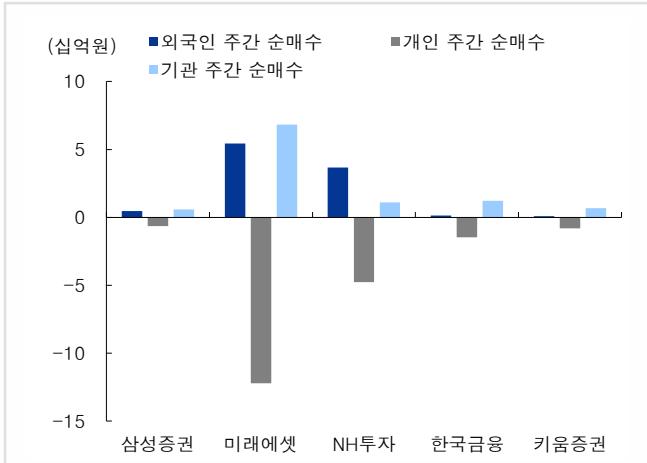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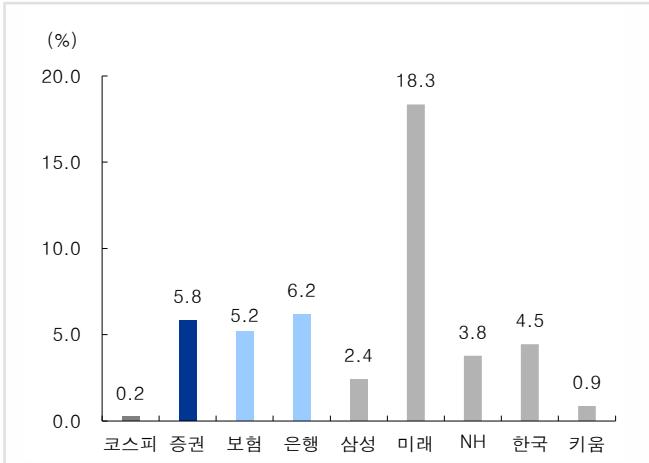



주간 수익률&수급

(1.22~1.26)


업종 코멘트

- 금주 증권업종 수익률은 5.8%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 0.2%를 크게 상회하였음. 금융업종 내에서는 증권, 보험, 은행업종 모두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. 이는 배당 및 실적 반등 기대감이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됨
- 증권업종 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음. 미래에셋증권은 1월 25일 자사주 1,000만주를 장내 매수하겠다고 공시하였으며 또한 2월 22일 이사회 결의 후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할 예정임
- 24년 1분기 증권업종은 전통IB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며 지난해 보수적 비용의 기저효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됨. 이에 따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음. 커버리지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를 공시했으며 3월 중 배당 관련 공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배당 관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. 부동산PF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며 증권업종 투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금주 일평균거래대금은 19.6조원으로 전주 대비 4.8% 증가하였음. 이는 신규 상장종목으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. 투자자예탁금은 전주 대비 3.0% 감소한 48조원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월 중 가장 낮은 수준임. 신용공여 잔액 역시 전주 대비 2.7% 감소하였으며 투자심리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. 다만 일평균거래대금이 2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Brokerage 영업환경은 양호한 수준으로 생각됨

Weekly 주요 뉴스

- "사업자금 95%가 남의 돈"..정부, 부동산 PF 사업구조 바꾼다 <1.22 / 머니투데이>
 - 미국은 시행사가 사업비의 20~30% 수준을 초기 자본금으로 집행
 - 저축은행, 시행사 자기자본 20% 넘어야 PF대출 가능.. 전업권 확산할지 '주목'
- 금투협회장 "증권사 PF ABCP 매입,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" <1.23 / 연합뉴스>
 - 해당 프로그램은 앞서 2022년 말 중소형 증권사들의 PF ABCP 관련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를 주축으로 업계 등이 자금을 모으며 시작
 - 애초 운영 시한은 작년 5월까지였으나 지금까지 몇 차례 연장 운영돼왔음
- 금융당국 수장들 증권사 질투..."PF 관리 실패시 책임 묻겠다"(종합2보) <1.24 / 연합뉴스>
 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 5~10% 정도인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"100%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"고 밝힘
- 미래에셋증권, 3개월만에 자사주 1천50만주 추가 매입 <1.25 / 연합뉴스>
 - 보통주 1천만주와 2우선주 50만주로 각각 유통주식 수의 2.2%, 0.4%에 해당하며 4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장내 매수 완료 예정
 -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22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안 결의도 계획하고 있음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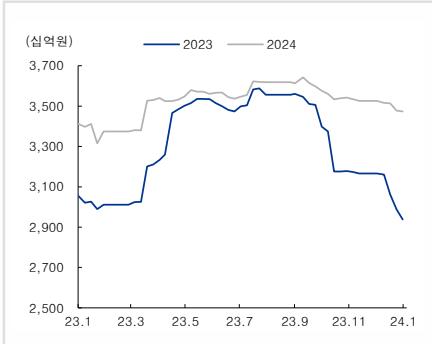
증권 Peer Table

구분	종가 (pt, 원)	시가총액 (조원)	주가 변동률 (%)					2023F			2024F		
			1W	1M	3M	6M	YTD	P/B	P/E	ROE	P/B	P/E	ROE
KOSPI	2,479	1,943	0.2	-5.2	7.6	-5.0	-6.7	0.92	15.92	5.9	0.86	10.19	8.7
KRX증권	640	19.9	5.8	-1.0	11.2	7.9	-2.9	0.43	5.70	7.8	0.40	4.88	8.5
KRX보험	1,556	38.8	5.2	-3.5	-5.2	3.5	-4.8	0.39	4.62	10.8	0.37	4.31	8.8
KRX은행	688	94.7	6.2	3.0	13.1	12.5	0.7	0.40	4.60	9.0	0.37	4.32	8.9
삼성증권	36,250	3.2	2.4	-4.9	1.8	2.1	-5.8	0.49	5.06	10.0	0.46	4.90	9.6
미래에셋증권	7,680	4.6	18.3	3.8	17.3	12.4	0.7	0.42	13.15	4.2	0.40	9.05	5.6
NH투자증권	10,170	3.4	3.8	-0.4	3.4	4.5	-1.5	0.47	6.22	7.8	0.45	5.86	7.9
한국금융지주	58,600	3.3	4.5	-2.3	18.3	20.8	-4.4	0.41	4.35	10.3	0.38	4.13	10.0
키움증권	92,800	2.4	0.9	-4.8	17.0	-5.5	-6.7	0.52	5.98	9.6	0.47	3.92	13.4

자료: Quantwise, IBK투자증권 / 1월 26일 종가 기준

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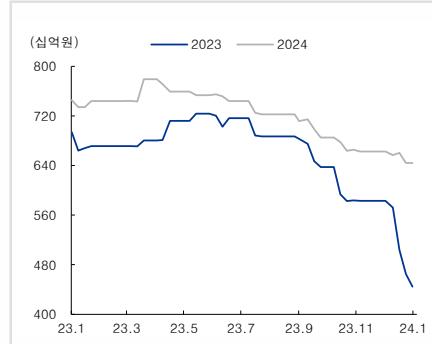
커버리지 5개사 합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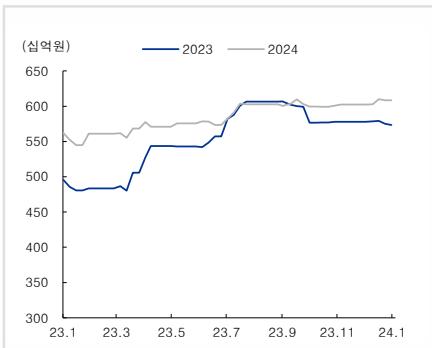
삼성증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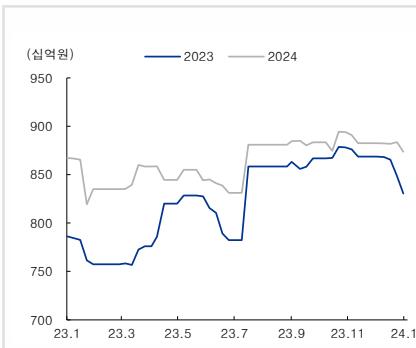
미래에셋증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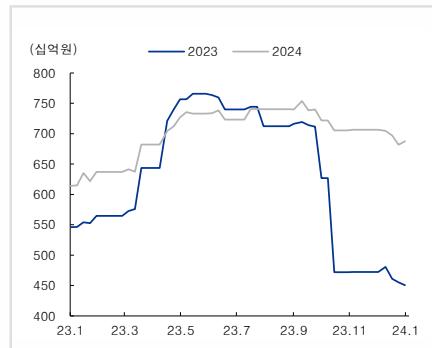
NH투자증권



한국금융지주



키움증권



자료: Quantwise, IBK투자증권



IBK기업은행 금융그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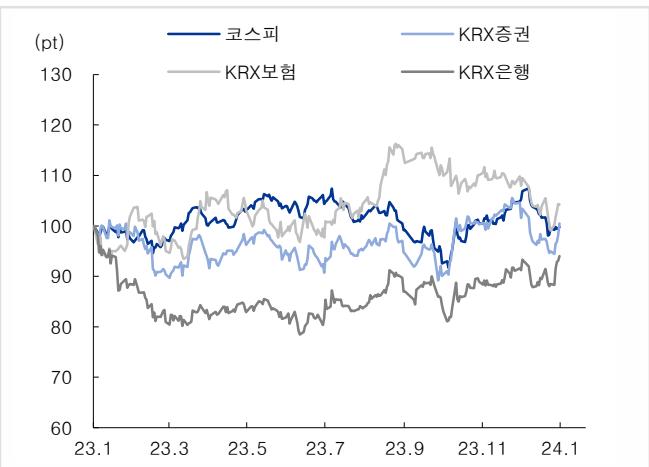
IBK투자증권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,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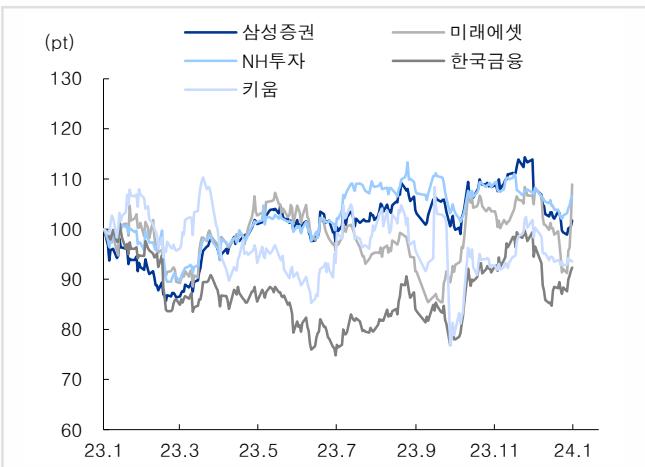
주요 차트

금융업 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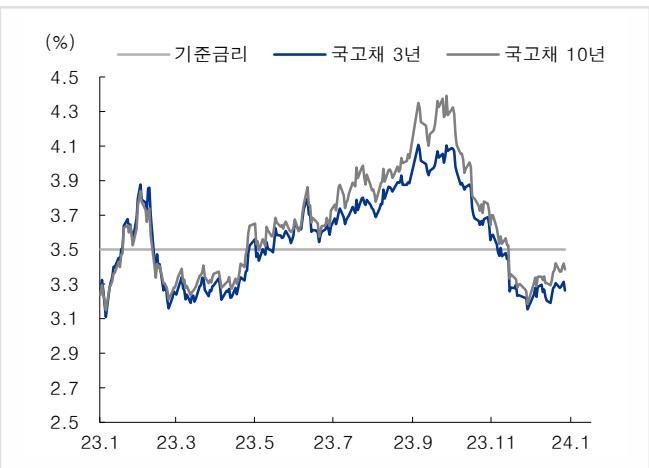


자료: Quantiwise, IBK투자증권

커버리지 증권사 주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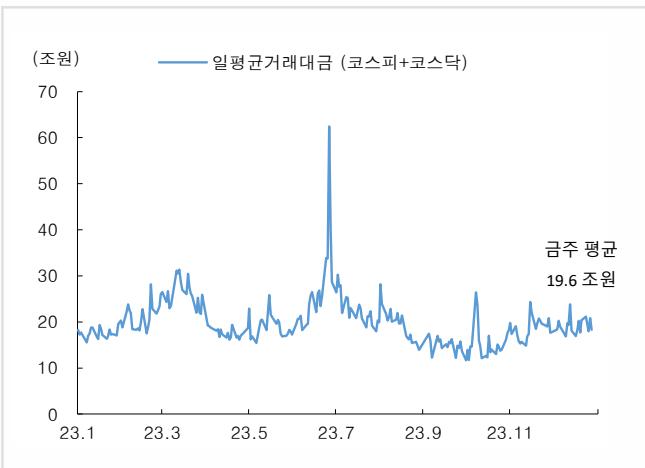


금리 추이: 금주 횡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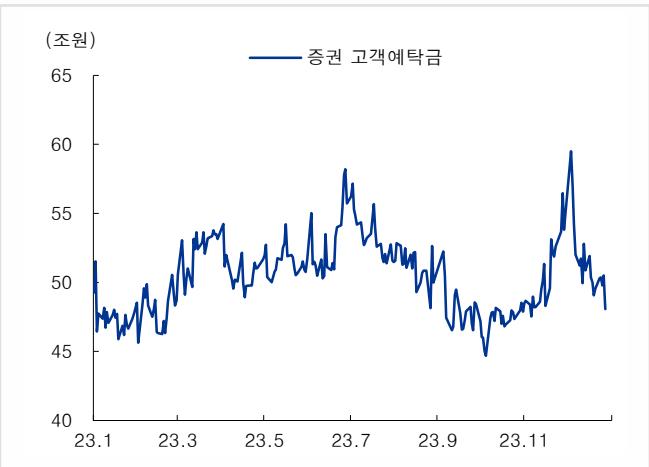


자료: Quantiwise, IBK투자증권

거래대금: 전주 평균 대비 4.8% 증가



고객예탁금 전주 대비 3.0% 감소



자료: Quantiwise, 금융투자협회, IBK투자증권

신용공여 전주 대비 2.7% 감소

